

국제지식재산경제전쟁의 동향과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 상 희

무형 지식재산으로의 경쟁력 원천 이동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원천이 눈에 보이는 유형재산에서 특허 등의 무형재산으로 이동(shift)한다는 데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상품 등의 유형재산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시절에는 상품화 각 단계의 부가가치(Value added)를 누가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가 또는 누가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느냐가 경쟁력확보의 핵심이었고, 따라서 생산성향상, 원가 절감 등의 기법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미국, 일본 등지의 선진국이나 선진기업들은 超부가가치 혁명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超부가가치경영이란 원가절감 등으로 단순히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두뇌에서 나오는 특허나 아이디어로 원가초월의 대박을 터뜨리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을 통한 미국, 일본의 세계경제지배 야욕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강대국들은 이러한 경쟁력 이동의 원천과 방향을 일찍이 간파하고서 특허중시정책(Pro-patent Policy)이니 지적재산입국전략이니 하는 국가경영 좌표를 설정하고서, 전체 정부 및 국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경쟁력 확보를 극대화하고 있다. 국력의 핵심구성요소인 경쟁력의 기준이 무형 지식재산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다시금 특허 등의 지식재산에 의한 세계경제지배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국제지식재산 경제전쟁의 패권확보를 위한 미국 및 일본의 공동보조

우선, 지식재산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세계 공통의 특허법”이라고 할 수 있는 PLT(Patent Law Treaty) 창설을

주도하고 있는 데, 세계 공통의 특허법이 제정, 실시되어 특허권리 등록이 간편하여지고 특허범위가 확대된다면, 두 뇌창조의 과학기술과 특허의 씨앗인 발명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이들 국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1세기 국력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특허 등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이를 무기화하기 위하여서는 세계경제 질서를 자기들 강대국에게 유리하도록 구축, 재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데, 양국은 이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제 특허공동체 설립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인데, 특허공동체가 되면 조약체결국가 상호간에는 한번의 권리등록절차로 당해 조약체결 모든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기 시장 진입에 따른 확실한 시장선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미, 일 특허경제공동체 창설 및 미, 일, EU 3국간 지식재산 3국(IP Triangle)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이유도, 가장 경계하는 중국을 따돌리는 데 있어서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것만큼 유리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지식재산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로부터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모방품 및 해적판 등의 지적재산침해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을 주창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한국, 대만 및 태국 4국에서만 18조엔(2003년 말 기준)의 지적재산침해의 손해를 입었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고, 미국도 이에 동조하여 연간 2,500억 달러의 손실과 75만 명의 고용창출기회를 잃었다며, 일본의 다자조약 제창에 손뼉을 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지적재산침해문제를 전담할 국제지적재산권 집행조정관을 임명하였다. 이 자리는 전 부처를 통할하여 지적재산정책을 재단할 수 있고 대외조약체결의 협상권까지 가진 막강한 자리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양국은 근년에 미, 일 이중조세

방지조약을 개정하여 지적재산의 공동창출 및 거래에 따르는 모든 조세를 무세(無稅)로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적재산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지적재산을 통한 세계경제의 지배 및 통할을 위하여 세계 공통의 언어인 지적재산회계기준 재정립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두뇌창조 지식재산 강대국 건설과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이 다시금 세계경제를 지배하려는 공동의 야망에 불을 지피고, 통합된 EU가 독자적인 특허공동체로 이들에 대항하며, 4억 3,000만 명의 예비 발명가가 꿈틀거리는 중국이 이러한 대세에 동승하려는 작금의 국제추세에서 우리 한국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무형의 지적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경제대국들이 이에 초점을 맞춘 국가경영전략을 펴듯이, 우리도 하루속히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적재산의 창출, 권리화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영좌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경영 좌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는 특허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연구개발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잘 활용하면 연구기간이 21.1% 단축되며 연구비용도 11.2%나 절감된다고 한다. 또, 특허정보를 잘 활용하면 시장성에 맞는 연구개발주제의 선정, 특허분쟁의 축소관리 및 특허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사업화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 국민의 특허문화운동 전개와 한국특허정보원의 기능 확대

특허정보의 체계적 구축, 검색, 분석 및 활용이 국가 및 기업의 지적재산전략 성패를 좌우할 정도라면, 특허정보의 관리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특허의 씨앗인 발명의 창출 및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정보 마인드 계몽을 전 국민의 문화운동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서도 특허 및 특허정보의 검색,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대학입시나

기업체입사시험도 종래의 필기시험대신에 노트북으로 특정 주제를 검색, 분석하는 실기위주로 바뀔 때, 국민의 두뇌 창의력은 배가될 것이고 현재 한국의 심각한 고민인 이공계기피현상도 해소될 것이다.

이웃 일본은 이미 지식재산문화(IP culture)운동으로 전 국민의 지적재산 요원화를 꾀하고 있고, 중국도 과학기술 보급클럽을 통하여 4억 명이 넘는 잠재적 특허발명 예비군을 육성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특허청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지적재산의 핵심 경쟁력인 특허정보 등 각종 지적재산정보의 수집, 가공, 조사 및 분석을 보다 체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범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을 지원, 계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기술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에도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상희 회장 약력]

현 직 :

- 대한변리사회 회장
- 한국사이버교육학회 회장
-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총재
- 녹색살기기술경제연구원 이사장
- 부산사회체육센터 이사장
- 아세아·오세아니아사회체육연맹 회장
- 중국 청화대 객좌교수

학 력 :

- 변리사
- 미국 조지타운대학 Law School 수학
- 서울대 약대, 서울대 약학 박사
- 부산고, 검정고시

경 력 :

- 11/12/15/16대 4선 국회의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 과학기술처 장관
-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 한국영재학회 회장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